

현대오일뱅크, 공정거래 준수 서약

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 1800여명이 모두 참여해 공정거래 준수를 서약했다.

현대오일뱅크는 3월15일부터 2주일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교육을 하고 준수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서영태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물론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이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서에는 ▲공정거래 준수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 승인, 방조 금지 ▲경쟁기업 모임이나 연락, 정보교환 등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 ▲모든 정보는 경쟁기업이 아닌 시장에서 취득 ▲공정거래 문의는 반드시 실무 부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칠 것 등을 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에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과 함께 윤리경영 서약도 함께 진행했다.

신방호 부사장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준수 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0/4/12>